

■ 마르틴 코르테스, “최초의 메스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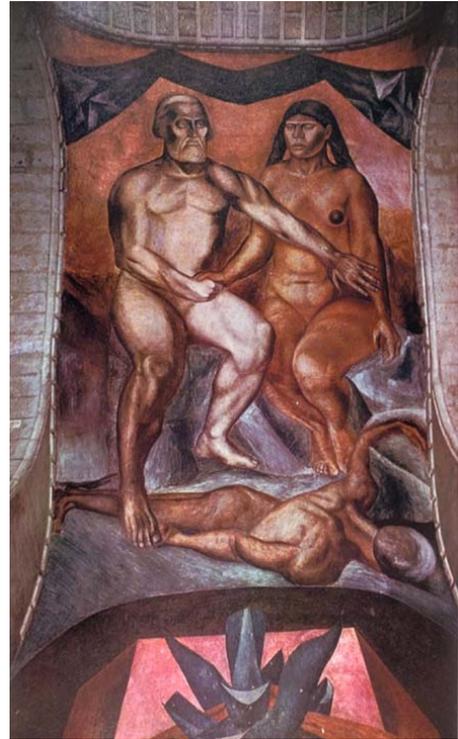
박 병 규

1522년, 아스테카인들의 핏빛 저항이 채 가시지 않은 멕시코 땅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이름은 마르틴 코르테스(Martín Cortés). 아버지는 아스테카 제국의 정복자 에르난 코르테스(Hernán Cortés)요, 어머니는 정복전쟁 내내 통역관으로 곁에 붙어 지내던 원주민 여자 말린체(Malinche)였다.

역사에서는 이 아이를 “최초의 메스티소”라고 부른다. 생각해보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착한 지도 어언 20년이나 지난 때였으므로, 유럽태생의 백인 아버지와 원주민 여자 사이에는 수많은 메스티소가 태어났을 것이다.

그런데도 조상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현대인들은 이 아이를 “최초의 메스티소” 또는 “최초의 멕시코인”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1522년이면 에르난 코르테스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다. 쿠바에 머물 때, 스페인 여자 카탈리나 수아레스(Catalina Xuárez)와 정략결혼을 했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틴 코르테스는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였다.



〈코르테스와 말린체〉 (1923-26) 멕시코 벽화가 오로스코(Oroscopo)의 작품



멕시코시티 근처의 쿠에르나바카에 소재한 ‘에르난 코르테스 궁전’. 1526년 코르테스는 원주민의 신전 위에 이 건물을 올려 지배자로서 권위와 위엄을 과시했다.

아스테카 제국의 멸망을 그렇게도 바랐던 말린체는 아들 하나만 나아주고 곧 코르테스 곁을 떠나버렸다. 첫째 부인 카탈리나

도 마르틴이 태어나던 해 갑작스럽게 죽었다. 이리하여 어머니 없이 자란 마르틴 코르테스는 1528년 아버지를 따라서 스페인으로 갔고, 곧 국왕 카를로스의 5세의 시동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1540년 어느 날이었다. 스페인 왕실에서 마르틴 코르테스는 또 하나의 마르틴 코르테스를 만났다. 아버지가 데려온 이복동생이었는데, 나이는 자기보다 10살이나 어리고 피부색도 다르지만 이름만큼은 철자하나 틀리지 않았다. 에르난 코르테스는 무슨 이유에선지 정실부인 후아나 데 수니가(Juana de Zúñiga)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게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이다. 게다가 어린 마르틴 코르테스 또한 왕실의 시동이 되었으니, 한동안 두 사람은 마치 『백년 동안의 고독』에 등장하는 쌍둥이처럼 구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적어도 현재의 역사가에게는 그렇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명은 아버지 코르테스가 스페인에서 사망(1547)한 이후에 점차 극명하게 갈라지게 되었다. 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오아하카 후작’이라는 작위와 함께 방대한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형은 이제부터 동생이 드리운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1563년 멕시코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동생은 후작의 신분으로 마치 왕 같은 환대를 받았고, 외출할 때도 화려한 가마를 이용했으며, 거의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열었지만 형은 집사처럼 수행원처럼 묵묵히 뒤치다꺼리를 도맡았을 뿐이다.

멕시코 터줏대감으로 자부하던 동생이 스페인에서 파견된 식민관리들에 맞서 반란 음모를 꾸미고 다닐 때도 형은 온갖 궂은 일을 도맡아 처리했다. 동생은 경제적 이해를 침해하는 식민관리들을 살해하고 왕이 되려고 했던 것이다. 음모가 발각되자 동생은 연루자를 밀고하고 목숨을 구했다. 그러나 형은 고문대에 묶어놓고 심문을 해도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 사지를 묶어놓은 밧

줄이 살점을 파고들고, 뼈마디가 늘어지고, 죽음이 찾아와도 끝내 침묵으로 버텼다. 이때가 1568년이였다.

“최초의 메스티소”, 마르틴 코르테스가 목숨을 내주고도 지키려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이복동생과 음모에 가담한 사람들의 안위였을까? 그보다는 어쩌면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슴속에 남몰래 간직한 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꿈은 아마도 귀동냥으로 전해들은 토머스 모아의 유토피아였을 것이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 피부색과 혈통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없고,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된 세상이었을 것이다.□



16세기 스페인종교재판에서 사용하던 고문대. 마르틴 코르테스도 이런 고문대에 올랐다.

참고한 책

Anna Lanyon, 2004. *The New World of Martin Cortes*. Cambridge, MA: Da Capo Press.

Luis González Obregón, 2005(1906). *Semblanza de Martín Cortés*. Fondo de Cultura Económica: México.

에두아르도 갈레아노, 2005. 『불의 기억(1)』 (박병규 옮김). 도서출판 따님.

박병규 - 현재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책임연구원이며, 역서로는 『불의 기억』, 『파블로 네루다 - 사랑하고 노래하고 투쟁하다』 등이 있다.